



# 미국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 개정: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 폐지

홍성우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경제학 박사과정)

## ■ 머리말

2017년 3월 13일, 뉴욕 주 교육부 이사회(Board of Regents)는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욕 주 교육부에 따르면 자격시험 개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 시험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교사 자격시험의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Academic Literacy Skills Test)의 폐지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여러 가지 찬반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자격시험들이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인종 간 현저한 동 시험의 합격률 차이가 해당 시험의 폐지 결정을 이끌어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1) <http://www.nysed.gov/news/2017/board-regents-act-amend-states-teacher-certification-requirements-based-recommendations>

## ■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의 개정<sup>2)</sup>

### 배경

2014년 5월, 기존에 시행 중이었던 뉴욕 주의 교사 자격시험이 일부 개편되었다. edTPA<sup>3)</sup>를 통한 시험 및 평가와 학생지도 관련 시험(Educating All Students: EAS)<sup>4)</sup>, 그리고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Academic Literacy Skills Test: ALST)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전공과목 시험(Content Specialty Tests: CSTs)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와중에, 2016년 1월 뉴욕 주 교육부 이사회는 edTPA TF팀을 재소집하여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자격시험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TF팀은 뉴욕시립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의 대표단, 사립대학교의 위원들, 교사 교육 고문단(Teacher Education Advisory Group), 유나이티드 대학교 교수, 그리고 뉴욕 주 교육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동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몇 가지 개정사항이 약 2년 만에 다시 이사회에서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뉴욕 주의 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① edTPA 시험의 합격 점수 재조정, ②

- 2) 본 장에서는 뉴욕 주 교육부의 이사회(Board of Regents)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교사 자격시험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http://www.regents.nysed.gov/node/8601> 참조).
- 3) edTPA는 주어진 과제 수행에 기초한 과목별 평가 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적인 평가시스템이다. 현재 미국의 40개 주에서 약 600개 이상의 교사 준비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강조 및 측정,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뉴욕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교사 자격요건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http://edtpa.aacte.org/faq> 참조).
- 4) 학생지도 관련 시험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다양성(Diverse student populations),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s), 장애 및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special learning needs), 교사의 책임(Teacher responsibilities), 학교와 가정 간의 관계(School-home relationships).

edTPA 시험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③ edTPA 응시자들의 정보공개, ④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의 폐지, ⑤ 학생지도 관련 시험에 대한 재검토 등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① edTPA 시험의 합격 점수 재조정

뉴욕 주의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과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기준 설정 위원회를 만들어 edTPA의 합격 점수를 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합격 점수 자체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시간적인 일정까지 함께 검토된다. 해당 부서에 따르면 새로운 합격 점수는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경에 발표 및 적용될 예정이다.

## ② edTPA 시험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이 개정은 edTPA 시험 응시자들이 향후 교사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의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하여 불합격하는 경우에, 이들은 새로운 평가방법을 통해 재평가받음으로써 합격 여부가 재결정된다. 시험에 탈락한 응시생들이 자신들의 시험 결과를 재검토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 위원회가 정한 edTPA 합격 점수를 기준으로 1 표준편차(one standard deviation) 이내에 포함되는 점수를 기록한 자
- 시험 응시생이 속한 교사 실습(clinical practice)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있는 대학교 교수들의 추천서
- 시험 응시생의 실습 지도교사들(cooperating teachers)의 추천서
- 3.0 이상의 학점,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점
- edTPA 시험 이외에 다른 모든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대학교 교수와 실습 지도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교사로서의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위의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edTPA 불합격 응시자들은 현직교사 2명, 교장(principals) 2명, 감독관(superintendents) 2명, 교수 2명, 그리고 뉴욕 주 교육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되어 시험 결과를 재평가받게 된다.

### ③ edTPA 응시자들의 정보공개

edTPA TF팀의 권고를 받아들여 뉴욕 주 교육부는 edTPA 시험 응시자들의 정보들(응시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매년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수행한다. 향후 공개되는 시험 응시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응시자 소속 기관 및 조직
- 응시자의 전공과목과 점수
- 교육자(educator)로서의 경험(연(年)수)
- 인구학적인 배경(background demographics)
- edTPA 응시 기간

### ④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의 폐지

edTPA TF팀은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하였다. 그 이유는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자격시험들을 고려할 때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 시험이 불필요하게 다른 자격시험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응시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비싼 응시료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뉴욕 주 교육부 이사회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규정에 대한 긴급한 법 개정(emergency amendment)을 실시하여 교사 자격시험 중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7년 3월 14일자로 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울러, 2017년 7월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이 폐지 법안이 영구적인 제도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⑤ 학생지도 관련 시험에 대한 재검토

뉴욕 주 교육부는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학생지도 관련시험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이 시험이 응시자들의 읽기와 쓰기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 시험은 학생들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응시생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읽기와 쓰기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 ■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의 개정 이유와 관련 논쟁

교육부 이사회 이사장(Chancellor) Betty Rosa는 이러한 뉴욕 주의 교사 자격시험 개정이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제도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시험을 통해서 시험 응시생들은 실제 교사로서 교단에 서기 전 자신들의 교육 및 지도 관련 기술과 지식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격시험 중 일부, 즉 읽기 및 쓰기 능력 검증시험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불필요하며, 그리고 많은 응시생들에게 불공평한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 주 교육 위원회 위원 MaryEllen Elia는 개정 이후에도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계속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고민할 것임을 밝혔다. Elia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문가들과 현직 교사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교사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선생님에게 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 주의 교사 자격요건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자격시험의 개정은 전국적인 교사 수의 부족함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5)</sup>

3월 13일자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뉴욕 주의 자격시험 개정 이유, 특히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의 폐지 이유를 동 시험의 결과가 보여주는 인종 간 합격률의 현격한 차이 때문

5) <http://www.nysed.gov/news/2017/board-regents-act-amend-states-teacher-certification-requirements-based-recommendations>

인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즉 흑인과 히스패닉 응시자들이 백인 응시자들에 비해 동 시험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백인 응시생 중 64%가 읽기 및 쓰기능력 시험의 첫 응시에서 합격한 반면, 흑인은 응시생의 41%, 히스패닉은 응시생의 46%만이 첫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시험의 폐지는 이전 이사회 회장 Meryll Tisch하에서 추진되었던 교사 자격시험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교사의 전문성을 낮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 시 지역신문 뉴욕포스트에서도 이러한 염려를 보여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sup>7)</sup> 맨하탄 정책연구소의 교육정책 책임자 Charles Sahm은 “이와 같은 뉴욕 주의 시험 개정은 교사의 평가과정을 포기하거나 희석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시험이 자격 조건을 갖춘 응시자들을 유치해내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사라는 직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게 되어 향후 교사의 질적 수준이 평균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미국의 차터 스쿨(charter school) 옹호단체 StudentsFirstNY의 책임자 Jenny Sedlis도 이와 같은 뉴욕 주 교육부의 결정에 맹비난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자질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은 인종 차별적이지 않으며 학생 교육에 필요한 일종의 기술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sup>8)</sup>

교사의 질적 수준 하락을 우려하는 이러한 공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 학장들(deans of education schools), 대부분의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은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동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이 교사라는 직업

6) 뉴욕타임스, 2017년 3월 13일자 기사, <https://www.nytimes.com/2017/03/13/nyregion/ny-regents-teacher-exams-alst.html>

7) 뉴욕포스트, 2017년 3월 6일자 기사, <http://nypost.com/2017/03/06/state-considering-major-changes-to-teacher-certification-exams/>

8) 뉴욕타임스, 2015년 8월 8일자 기사, <https://www.nytimes.com/2015/08/08/nyregion/judge-rules-new-york-teacher-exam-did-not-discriminate-against-minorities.html>

내 인종의 다양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 교육부의 보고서<sup>9)</sup>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백인인 반면, 공립학교 학생의 상당 비율은 백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헌터 대학교의 교육 대학교 학장 Michael Middleton은 자격시험 개정 이전의 총 4 가지 시험은 응시자들에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험 응시 비용의 지불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 시험의 폐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들이 대학교 학사학위 소지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능력과 대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읽기 및 쓰기능력 검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에 근거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검정 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자체에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없을지라도 그 시험의 합격률이 인종 간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직업 내 인종의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주장은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동 검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사의 자질 중 하나로 읽기와 쓰기능력 또한 다양성 못지않게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종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교사의 읽기 및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글의 머리말에서 살펴본 것처럼 2~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방향으로 자격시험이 여러 차례 개편된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는 이것이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비춰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9)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리고 찬반의 입장을 각각 뒷받침할 만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향후에는 제도 변경이 야기할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DI**

---

---

### 참고문헌

---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The State of Racial Diversity in the Educator Workforce”.
- 뉴욕 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nysed.gov/>
- 뉴욕 주 교사 자격시험 웹사이트, <http://www.nystce.nesinc.com/>